비상구 봉쇄·소화기 캐비닛 비치…禍 키웠다

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중간수사결과 발표

지자체 관리 허술・병원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人災

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도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·감독 및 미흡한 점검은 달라 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. 경찰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(이하 효사랑병 원) 방화 참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다.

경찰은 병원을 관리·감독 해야할 의무 를 저버린 보건소, 적정 수준의 인력과 소 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도 의료기관 인증을 해준 보건복지부, 소 방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민간 업체, 화 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해 병원을 지었던 건설업자 등이 함께 만들어낸 '참사'로 규 정했다. 일각에서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 표를 '수사 일단락'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만 검찰이 병원과 보건소, 소방점검업체 등 민·관 유착 의혹 가능성에 대해서는 "계속 수사중"이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전남지방경찰청 방화참사 수사본부는 12일 장성 요양병원 방화참사 중간 수사 결 과 발표를 통해 ▲간호 인력의 부적정한 배 치 ▲비상구 봉쇄 및 소화기 비치 기준 위 반 ▲병원 건물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등 소방 안전 관련 총체 적 부실을 대형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.

장성보건소는 화재 발생 일주일 전인 21 일 병원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불이 난 병 원 별관을 아예 점검하지 않았다.

보건소는 그러나 '이상 없음'이라고 허 위로 점검표를 작성하는 '관행'을 답습했 다. 이날 점검이 세월호 참사 이후 내려진 특별 조치라는 게 무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. 보건소 직원 2명은 이날 5곳의 의 료기관을 둘러보며 점검했다.

복지부의 부실한 점검도 문제로 지적됐

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 의 '효사랑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' 를 토대로 해당 병원의 의료인수 부족 사 실을 알고도 후한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.

장 의원은 복지부가 당시 "평균 재원 환자가 325명으로 상주 의사 2명, 간호사 4명이 필요하지만 상주 의사 1인, 간호사 2 인으로 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에 미달된

이래서 人災

• 장성보건소

병원 별관 점검하지도 않고 '이상없음' 허위 점검표 작성

• 보건복지부 의료인 부족 알고도 인증 화재예방 항목 후한 점수 줘

• 병원·민간업체 소방안전 점검 부실 화재 취약 샌드위치 판넬 사용

다"고 지적하면서도 효사랑병원의 의료기 관 지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. 복지부는 또 직원 소방안전 교육, 화재 예방점검 활동 등 화재 관련된 항목에서도 후한 점수를 매겼다.

경찰은 이외 수사 결과, 방화 참사 당시 병원 별관 2층에 있던 비상구 2개 가운데 1곳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던 점, 복도에 비치 돼야할 11개의 소화기 중 8개가 잠금 장치가 된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는 등 소 방 시설과 장비가 규정에 맞지 않는 사실 을 확인했다.

하지만 경찰은 ▲화재 당시 담양소방서 장, 장성경찰이 결박된 환자는 없었다고 적극 부인한 배경 ▲병원과 군청·보건소 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변죽만 울린 것 아니 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.

전남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, "병원 대표 등 화재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신 병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병원 건물 증·개 축 인허가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, 요양급 여 부당 청구 관련 사항, 병원 내부 운영 비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"이라 고 말했다.

광주지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효사랑병원 이사장에 대한 서류를 넘겨 받아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지속 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.

한편, 경찰은 방화 참사와 관련, 병원 대 표 이사문(53)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 의 등으로 구속하고 소방안전 책임자인 행 정원장과 관리과장, 소방점검업체 직원 보건소 직원, 건설 업자 등 총 14명을 입건 했다. /김형호기자 khh@kwangju.co.kr /장성=김용호기자 yongho@

치킨·피자가게 "월드컵 특수 없다"

새벽 경기에 길거리응원 자제 홍명보호 경기력 저하도 한몫

지구촌 축제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했지만 치킨 · 피자가게와 호프집 등 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모습이다.

이들 업종은 그간 월드컵이 열릴 때 마다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렸지만 올해는 새벽에 열리는 경기 일정과 홍 명보 호의 경기력 저하,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저조해진 탓이다.

12일 광주지역 피자·치킨·호프집 등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월드컵 마케팅에 손을 놓고 있다.

과거 '대한민국 16강 진출시 반값 할 인', '승리 기원 1+1행사' 등 월드컵 특 수를 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 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.

S치킨 가게는 각 룸마다 TV를 설치, 손님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려 고 했으나 새벽에 열리는 경기 일정을 본 뒤 포기했다.

각 지자체·대학교·영화관 등은 사 회적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길거리 응원전을 자제하기로 했다.

광주시는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 컵 때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체응원전 을 주최했으나 올해는 불투명하다.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 위원회는 월드컵 열기 확산을 위한 SNS 댓글 달기 이벤트로 길거리 응원 전을 대체키로 했으며, 전남대도 캠퍼 스 안에서 단체 응원전을 해왔으나 올 해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.

축구대표팀 경기력 저하도 관련업종 을 울상짓게 하고 있다. 축구대표팀이 평가전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오히려 월 드컵 열기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.

관련 업계는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.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마저 역력했다.

B호프집 주인 김모(45)씨는 "4년 전 남아공 월드컵 때는 매출이 50% 정도 올라 월드컵 덕을 톡톡히 봤지만 이번 에는 새벽에 경기가 열려 매출 상승 효 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"며 "세월 호 참사 등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아 매 출이 줄지는 않을까 걱정된다"고 말했 /백희준·박기웅 수습기자 bhj@

나주 고교생 60명 집단설사 역학조사

전남도는 최근 나주지역 한 고등학교 집 단 급식소에서 음식물 섭취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역학조사에 나

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60명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도와 나주시 합동으로 현지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전남도보건환경연 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. 또 학교 급식 중 단을 권고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음식물 섭취로 집단 설사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.

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지난 5일 야간 수업을 받던 학생 5명이 복 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 며 조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. 하지만 학 교 측은 3일간 연휴가 겹친 데다 식중독의 심증세를 호소하던 학생들의 몸 상태가 호 전되자 최초 의심증세가 관찰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10일에야 교육청과 보건 당국 에 신고했다.

식중독 의심환자 중 현재 학생 1명만 나 주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했 으며, 나머지 학생들은 증세가 경미한 것 으로 파악됐다.

/나주=손영철기자 ycson@



담뱃값 오른다는데…이 기회에 끊어봐?

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의 금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 데 12일 광주 북구 보건소가 우산동 근린공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, 직원들이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있다. 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사고 다발 국도 29호선 쌍봉교차로 폐쇄

좌회전 금지…우회도로 진입

6명이 사망해 '공포의 교차로'로 불리 던 국도 29호선 쌍봉교차로 〈광주일보 5월26일자 6면〉가 결국 폐쇄된다. 이 교차로에선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2일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, 6명이 사 망한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조치라는 여 론이 높다.

익산지방국토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와 화순경찰은 "대형 교통 사고가 빈발 했던 화순 쌍봉 교차로를 13일부터 폐쇄 한다"고 12일 밝혔다.

경찰은 차량이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 하거나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 런 감속을 하게 돼 추돌사고가 잦았던 점 을 감안해 신호등을 철거하고 단속 카메 라도 옮길 방침이다. 기존 교차로 구간에 는 중앙 분리대를 연결해 좌회전이나 정 지 없이 왕복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.

교차로 폐쇄에 따라 좌회전이 금지되면 쌍봉사와 매정 마을로 가는 차량들은 쌍봉 교차로 전·후 교차로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. 광주국 토관리사무소와 화순경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인근 10명의 마을 이 장과 주민 50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관리부 에 '입체교차로 설치'를 건의했지만 아직까 지 묵묵부답이다.

특히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교통안전 공단이 국도 29호선 쌍봉교차로의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차로 형태 를 입체 교차로로 변경해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예산 부 족을 이유로 교차로 부근에 미끄럼 방지 포장(5000만원 예산)을 하고 경보등을 비롯한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쳤 다. 이같은 조치는 당시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.

/김형호기자 khh@kwangju.co.kr

아내 외도 의심한 50대 남편 술마시고 주먹질



가 경찰서행

○…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 던 50대 남성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

○…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 모(53)씨는 지난 11일 밤 11시50분께 광 주시 북구 각화동 A아파트 자신의 집 안

방에서 아내 박모(46)씨의 얼굴 등을 주 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.

○…김씨는 5년 전부터 아내와 동거를 해왔으며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, 경찰에 서 "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는데, 남자 손님 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줄 알고 화가 났다"고 진술. /이종행기자 golee@

(전대2분)수익성

신축원룸매매4층(용봉지구 미래A옆코너)

룸21개(1층상가 2칸, 4층 고급주택1개 옥탑) (엘리베이터완비, 정남향, 등기완료) **월수익 880만**(1년 수익 1억500만 발생) **매가11억**(보2억 융3억 실투자5억7)

신축원룸매매4층(전대정문1분,전대후문1분

룸12개(1층 점포,4층고급주택,옥탑) **월수500만**(1년6000만 수익발생) **매가 6억5천**(보4천 융1억2천)

신축원룸 매매 4층(전대정문1분) 등기완료 **룸18개** (4층 주택) **매가12억**(보5천 융2억6 월800)

원룸매매 4층(전대정문1분코너) 등기완료,임대완료 **룸18개**(1층 상가2칸) **매가8억**(보4천 융1억 월700)

용봉동 원룸 룸11개 매가4억(보2천 융8천 월400) 나주 이창동 원룸

룸18개 매가3억8(보3천 융1억2 월550)

㈜대신 010-6670-9800

상가매매(수익성)

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미 (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)

토지96평 건물 565평 **월수700만**(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) **매가9억5**(보2억 융4억5)

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(4/3층) **85평**(신한은행 두시,모아엘가A 상가앞) **매가3억5천**(보3천 융2억5)

(월수익 200만, 1년 2400만) 수완지구 상가 매매 3층(엠스타빌딩) **62평**(롯데마트 옆 서 하남공단 쪽) 매가 2억5천(보2천 월 120 용9)

첨단지구 상가매매2층(대상오션스파) **62평**(부영APT앞)

매가1억7천(보1천 월70 융9)

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

매가1억9천(토지205평 건135평)

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**매가 4억2천**(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)

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(2층)

(운천역 1번 출구 2분 올수리함) **11평 매가3천4백**(보200 월27 융1천) **12평 매가3억5백**(보200 월30 융1천)

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(3층 정연) (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)

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→ 1억5천

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 48평(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) **매가** 1억5천 할인가 → 1억2천

(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) 교환하실 분(교환전문)

상호교환 하실 분

(5천~50억) APT, 상가, 토지, 근생

062)952-5584

(용봉지구)

용봉지구 미래APT 옆

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,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, 정남향

풀옵션 무료

32인치TV,세,냉,에 인터넷, 유선, 붙박이 신발장, 수도

첫입주자에게 사은선물증정

원룸 보200 월30만 투룸 보300 월40만

미래도빌 010-6670-9800 062)512-8080

상가임대 (수완지구 북구)

수완지구 3층 25평 임대 (신안은행 뒷, 모아A 상가앞) **보1천50만**(시비없음)

수완지구 3층 62평 롯데마트 옆, 하남공단 4번 쪽) 보2천 월120(분할가능)

수완지구 1층 18평 (대방 5차 APT후문앞) **보2천 월120만**(시비없음)

북구 우산동 1층 80평 (구호전사거리 무등장례식장) 보2천 월120만 (식당,까페,당구장,호프적합)

나주 삼영동 학원1층(70평) 2층(60평)-상담후결정

건축인테리어전문(신안)

건축 설계부터 시공,분양,임대 리모델링 무료상담해 드립니다.

062)**521–1060**

(주)대신경매

■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■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

■ 건축설계, 건축시공, 리모델링(무료상담)

근린시설/근린상가/근린주택 ▶ 수익성 물건

- 동구 산수동 근린시설(대 275㎡ 건246㎡) 감정4억6, 최저 3억2, 투자적합 ▪ 광산구 신창동 근린시설(대2000㎡ 건909㎡) 감정18억5, 최정10억4, 대로변 6차선 ·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(대100㎡ 건272㎡) 감정2억2, 최저1억, 주거상가
-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(대330㎡ 건1283㎡) 감정11억8, 최저5억3, 투자적합 • 서구 양동 근린시설(대809m² 건1108m²) 감정17억, 최저9억5천,
- ·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(대1123㎡ 건605㎡) 감정8억6, 최저4억8천, 각화시장부근 · 동구 충장로 근린시설(대713㎡ 건500㎡) 감정가11억, 최저4억9천7, 충장로5가 ·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(대1094㎡ 건4489㎡) 감저가41억, 최저28억8, 금호월드옆

주 유 소

광산서봉동 주유소(대1821m² 285m²) 감정가11억4, 최저8억2천, 영광도로 영암군 삼호읍 주유소(대918㎡ 건1292㎡)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

APT/주택

광산구 신창동 APT(대지62㎡ 건125㎡) 감정가2억5, 최저1억7천, 주거문화 · 남구 봉선동 APT(대지32.58㎡ 건59.4㎡) 감정가 8천8백,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·북구 중흥동 주택(대지254㎡ 건235㎡) 감정가2억, 최저1억5천, 전남대 부근

대지/토지

동구 계림동 대지(대지511㎡) 감정가6억9, 최저4억9천, 광주고 바로 앞 동구 충장로 대지(대지298㎡) 감정가5억, 최저2억2천, 충장로 유동인구 많음 · 광산구 소촌동 대지(대지1956㎡) 감정가20억, 최저20억, 광송간도로 송정역 · 광산구 송정동 대지(대지72.9㎡) 감정가1억2천8, 최저9천, 코너토지

오피스텔 및 특수물건

-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 (대428m², 건1907m²) 감정 3억5천 최저 1억6
- ·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(대205m², 건75m²) 감정 1억 최저 4천5백
- ·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(대32.8m², 건119.3m²)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·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
- (대5.81 m², 건21.7 m²)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· 서구 치평 수림 오피스텔 (대7.6m², 건44.1m²)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

건축시공 설계부터,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.

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실 분

상가,대지,근린시설 주택,APT,전문취급함

010-6832-9700 / 062)512-8080